

보도자료 (배포) 2017. 11. 16(목)

지		. 8
¬ ^	^	0

비고	* 국무총리 모두말씀은 회의시작	직후에 기배포 됐습니다.
담당	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	과장 김규형, 서기관 박용주 (044-200-2341, 2343)

지진 피해복구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- 이낙연 국무총리, 포항지진 관계장관회의 개최 -
- □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16일(목) 오전, 정부서울청사에서 포항지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지진 피해 및 대처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.
 - * 참석자 : 교육부·과학기술정보통신부·행정안전부·산업통상자원부·보건 복지부・국토교통부・국방부 장관, 국무조정실장, 환경부・해양수산부 차관, 원자력안전위원장, 기상청장, 문화재청장
- □ 이날 회의에서 △행정안전부는 「지진 피해상황 종합보고 및 향후 대책」, △교육부는 「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에 따른 후속 대책」, △원안위는「원자력시설 안전상태 및 향후계획」, △기상청은 「지진발생 및 여진 상황 종합보고」등을 보고했고,
 -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집행을 검토하고,
 - ㅇ 대학수학능력시험일 연기로 인해 대입 전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 측과 일정 조정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.
 - 또한, **원전에 대한 안전성 점검**을 철저히 해 **점검결과를 공개**하는 등 원전 인근 주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소통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.
 - 특히, 피해가 우려되는 원전·철도·도로·통신 등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.